

## 한국인의 행복감 결정요인\*

신승배(Shin, Seungbae)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연구교수  
sbsin0314@hanmail.net

### 국문요약

이 연구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Easterlin과 Sawangfa(2009)가 연구한 행복감과 삶의 영역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근거로 한국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인의 행복감은 행복을 둘러싼 삶의 각 영역(일, 가정생활, 가계경제)에 대한 인식에 의해 더 잘 설명되며, 행복감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형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주관적 계층의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역별 만족도 가운데 가정생활만족도가 특히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인이 한국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하는 심리적 요인이 행복에 중요한 인과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가 살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임을 의미한다.

**핵심용어:** 한국종합사회조사, 행복감, 영역별 만족도, 일, 가정생활, 가계경제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8062069). 본 논문의 초고는 2015년 6월 20일 서강대 철학연구소에서 열린 국내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세심한 논평과 유익한 제언을 해주신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드린다.

## I. 서론

최근 우리사회에서 행복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행복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했던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을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배타적 권리로 새겨 넣었다. 우리의 헌법 제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자유권, 평등권과 더불어 행복추구권을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에서 전제되는 행복은 객관화되기 어렵고 단지 추구만 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한다면,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도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 행복일 수도 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행복’은 많은 학자의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정의부터 어떤 상태를 행복한 것으로 볼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객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최근 유엔이 발표한 ‘2015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58개 국가를 상대로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총 5.984점으로 47위를 기록해 그런대로 괜찮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는 GDP, 기대수명, 겔럽이 실시한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과 선택의 자유, 부패 등에 대한 세계여론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별 행복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행복을 측정하는 초기의 지표들은 모두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제적인 것이었다. 특히 사회발전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 GDP는 국민의 물질적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 국가의 행복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로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면서 기존의 대표적 경제지표인 GDP가 국민의 행복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Easterlin(1974; 1995)은 후진국과 선진국,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등 30개 나라의 행복감을 측정했다. 그 결과 경제 발전 단계와 사회체제와는 상관없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높은 행복감을 나타냈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소득 수준이 더 높아져도 행복감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해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이 반드시 국민 행복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 역설(Easterlin Paradox)’을 주장하고 GDP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Stiglitz 외(2009) 역시 GDP와 같은 경제적 수치보다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고 GDP지표의 대안이 될 만한 적절한 웰빙 지표를 개발해서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우성대, 2014). 차용진(2013)은 이러한 GDP에 대한 비판에 대해 국내총생산이 한 국가의 경제력을 측정할 수 있지만 국민의 행복감이나 사회발전 수준 등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